

# 수백억 전남 전시·문화관 보완공사 중

## 별교묘악웰빙센터 연간 입장객 고작 200여명 부실운영 지리산역사문화관 “콘텐츠 부족 공모 통해 채우고 있다”

전남 일선 시·군이 수백억원을 들여 건립한 일부 전시관이나 문화관이 애초 예상보다 입장객수가 크게 저조하는 등 ‘파리안 날려’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복 투자에 따른 수요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콘텐츠 부족 등 운영부실 지적속에 추가로 리모델링, 보완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6년 147명, 2017년 215명, 2018년 292명.

지난 2014년 99억원(국비 49억 5000만원·국비 49억5000만원)을 들여 문을 연 보성 별교묘악웰빙센터(이하 센터) 전시홍보관의 최근 3년간 연간 유료입장객 수다.

수산물 물류활동과 전시, 홍보를 위해 지어진 연면적 2674㎡, 지상 3층 규모의 센터 부실이 최근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전남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직매장과 위판시설, 작업장, 저온저장시설, 공용면적 등으로 구성된 1층은 직매장과 음식점 등 일부 점포는 지난 2년간 공실로 방치돼 오다 지난 2018년부터 원래 목적인 판매장 대신 창고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보성군은 판매장과 저장시설, 음식점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산물 유통센터와 별교전통시장이 있는데도 센터건립을 해 애물단지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2층 꼬막 전시홍보장은 전시물이 부실해 연간 100~200여명의 입장객에 불과했다.

3층 체험시설은 건립 이후 식재료 운송용 꼬막관련 체험시설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감사에서 “보성군은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2층 전시홍보관을 꼬막사랑문화센터로 용도변경해 8억2000여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나 1,3층은 여전히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공사까지 합하면 예산 투입이 100여원을 넘어섰다.

지난 4월 239여원을 들여 개관한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역사문화관 역시 2개월간 누적 관람객이 1100여명에 그쳤다.

기본계획에는 연간 14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입장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가 예상보다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전체의 부지 면적은 5만3718㎡, 1관부터 3관까지 3개 전시관을 포함

해 부대시설까지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이 곳 역시 콘텐츠 부족 지적

이 나오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콘텐츠 부족이 사실이며 공모 등을 통해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보완공사가 완료되면 유료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독도는 우리땅** 17일 부산 금정구 금정중학교 대강당에서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부산보훈청 주최로 열린 ‘청소년나라사랑페스타’에 참가한 학생들이 손 태극기를 들고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 “보이지 않는 해양미세플라스틱 먹이연쇄 통해 인간 위협”

### 박은옥연구원 “해양쓰레기 57% 플라스틱…포괄 대응책 필요”

미세플라스틱 등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및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박은옥 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 해양생태계의 새로운 위협’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통합관리 정책을 통해 사전예방·수거부터 재활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은 총 17만6807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질별로는 플라스틱(57%)이 전체 해양쓰레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해양환경에 더욱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대

응 방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로서 인식돼야 한다.

또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 침적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및 오염이 심화돼 어족자원의 먹이 생물질 및 산란장·은신처가 감소되며, 방치된 플라스틱은 작은 조각으로 파편화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돼 생태계의 먹이 연쇄(사슬)를 통해 플랑크톤에서 어패류를 거쳐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위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시간이 경과돼 미세플라스틱으로 진해되기 전 최대한 수거·처리가 필요하며,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유해성과 유입경로, 오염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적인 모니터링 체계

를 정비하고 도서지역을 포함한 정부·지자체 간 해양플라스틱 처리 관련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해양플라스틱 포함 해양쓰레기 발생원 예방 사전처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도입 및 어구관리 시스템 구축,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유입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양쓰레기 자원화 노력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양플라스틱의 배출량 감소와 자원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양플라스틱이 포함된 해양쓰레기 수거지 원사업의 정책예산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은홍 기자

## 고흥 갯벌서 50대 여성 추정 시신 발견

고흥군의 한 갯벌체험장 인근 해안가에서 허리에 소화기가 묶여 있는 50대 여성 추정 시신이 발견됐다.

17일 오전 7시 5분께 고흥군 한 갯벌체험장 앞 해안가를 산책하던 마을 주민이 갯벌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해안가 갯벌에 얽혀 있는 상태였으며, 허리에 소화기가 묶여 있었다. 부패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시신의 허리에 소화기가 묶여있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수해경은 주변 CCTV분석과 함께 시신을 부검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흥=한윤섭 기자

## 불법 어구 사용 바지락 채취 어민 적발

남해안 삼마을 앞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법위반)로 여수선적 잡수기 어선 D호(8.55t) 선장 A(54)씨와 잡수사 B(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14일 오전 4시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해 남면 소두라도 인근 해상서 오전 7시께부터 바지락 30방(1방당 14kg) 총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어구인 고압 분사기를 이용해 바닷속 펄을 파내고 석션호스를 이용해 바지락을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조개 채취 불법 장비를 압수하고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불법 조업 여부와 법적 어구를 적정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 ‘버스터 왜 통로 막아’ 서로 때린 2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버스 하차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58·여)씨와 B(30·여)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활리는 등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타고 있던 시내버스 안에서 B씨가 내리지도 않을 거면서 왜 하차 통로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지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다음 버스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었던 B씨가 이에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벌여졌다.

이들은 정류장에 함께 내린 직후 A씨가 B씨를 폭행하자, 이에 맞서 B씨도 A씨의 몸을 밀치며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시비 끝에 잇단 집단폭행 조폭·추종세력 검거

술자리에서 승강이를 벌이다가 20대 남성들을 집단 폭행한 폭력조직원과 그 추종세력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시비가 붙은 남성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공동상해)로 배모(25)씨와 폭력조직원 이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고모(25)씨 등 2명도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배씨와 이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6시께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A(21)씨를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잔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 고씨 등 2명은 A씨를 도우러 온 또다른 폭력조직 행동대원 B(21)씨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씨는 A씨의 여자친구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왜 내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느냐’며 항의하자 승강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평소 따르던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씨와 고씨에게 연락을 했으며, 먼저 도착한 이씨와 함께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